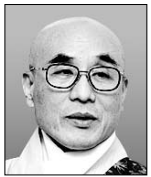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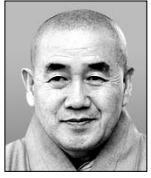
일주문



대교 보우국사 탄신대례
대교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11월 3일 오전 11시 북한산 고양 대교사에서 대교보우국사 탄신 703돌 탄신 대례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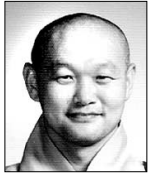
봉은사와 공양미 실천 협약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11월 7일 도봉공동체운동의 일환으로 서울 봉은사와 '친환경 공양미 실천 협약'을 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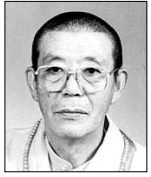
소쩍새 가족과 한려수도 순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종범 스님은 10월 28-29일 소쩍새마을 가족 70여명과 직원 12명 등 총 82명과 함께 통영 한려수도를 방문했다.



자원봉사자 연수 실시
조계종 자원봉사단장 지원 스님은 11월 5일 안성 너리굴문화마을 연수원에서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를 실시한다.



대웅전 복원 준공법회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은 11월 5일 오전 10시 삼존불·탱화 점안 및 대웅전 원형복원 준공법회를 봉행한다.



순국선열 위령 만능불사
대교종 전부교구 총무원장 향산 스님은 11월 3일 오전 10시 남원 만민의 총에서 순국선열 위령대제와 만능불사를 봉행한다.



학생들과 서사극 관람
금강대 김유복 총장은 11월 3일 재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공연되는 뮤지컬 서사극 '더 플레이 엑스'를 학생들과 함께 관람한다.

불교여성개발원 제 2대 원장에

김인숙 국민대 명예교수



불교여성개발원은 10월 26일 이사회를 열고 제 2대 회장에 김인숙 국민대 명예교수(사진)를 만장일치 추대했다. 김 교수는 '불교여성개발원은 4년동안 인고의 시간을 견디면서 발전의 싹을 틔우고 있다'며 '기존 사업들을 발전적으로 추진, 부처님법을 널리 알리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재 기자

금강대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외국인 교수 3인이 본 '한국불교'

화엄과 선의 조화 '절묘'

이시이 코세이(코마자와와)

"한국불교의 화엄사상은 중국·일본과 비교할 때 실천적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화엄학의 대가 이시이 코세이 교수(코마자와 단기대·사진)는 한국불교의 특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효 스님이 20세기 들어 부각된 것은, 그가 중국·일본에서 공통되게 존경받는 선사였기에 한국불교의 상징으로 재발견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불교 전체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8세기 신라불교'에 대한 규정이 가능하듯이 특징은 엄연히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활용 세계화 필요

찰스 윌러(뉴욕 스토니브룩대)

"한국불교는 살아있는 불교,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는 불교라는 데 감정이 있습니다. 뉴욕 스토니브룩대에서 '합허 기화 스님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 한국불교에 정통한 토요카루엔대 찰스 윌러 교수(사진)는 전자불교사전을 개발, 불교정보화의 선구자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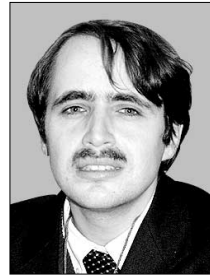


한국불교 서적 번역이 미진해 늘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윌러 교수는 "해외 연구가 원효·지눌 스님에 치우치고 있는 것은 두 스님 외에 소개된 스님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근대 고승에 대한 소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번역 사

사회문제 해결 최적의 종교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불살생계를 지키기 위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불교계의 화두가 돼야 합니다. 러시아 태생으로 모스크바 대학에서 고대 가야사를 전공했으며 2001년 한국에 귀화, 여러 저술을 통해 한국사회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보여준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대·사진)는 금강대 국제불교학술회의 참가자 귀국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대양 씨를 면회, 격려하는 일만쯤은 잊지 않는 열의를 보였다.



"계를 받은 바도 없고, 신도 증도 없는 엉터리 불자이지만 부처님 법을 따르려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불교야말로 현대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종교"임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극단적인 약육강식 논리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출세주의와 소유욕의 허구성을 깨우쳐 삶의 변화를 유도하는 불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경찰 포교 더 노력할 것"

대통령 표창 장곡 스님



10월 21일 제5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들의 정서 순화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중남지방경찰청 경승지단장 장곡 스님(공주교구 주지·사진)은 "앞으로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통해 경찰불교회의의 대사회적인 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곡 스님은 부여·공주경찰서 등을 찾방하며, 경찰불자들의 활동을 장려해왔다. 김은경 기자

"교화 활동 더 큰 관심"

법무부장관상 성원 스님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사진)이 재조사 교화 활동에 힘써온 공로로 10월 25일 법무부장관상을 받았다. 스님은 인천구치소, 안양소년원, 영등포구치소 등의 재소자들에게 정기적인 재정 후원 뿐 아니라, 각종 명절 때마다 따뜻한 손길을 보내왔다.

성원 스님은 "불교계에서 교화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남동우 기자

"이웃과 함께할때 행복"

서울사랑시민상 법경 스님



서울 능인정사 법경 스님(사진)이 19년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선전에 앞장선 공로로 인정받아 10월 28일 서울 시청으로부터 '서울사랑시민상' 봉사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보다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1985년부터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식량과 생필품 등을 지원해 왔다. 김은경 기자

L.A. 금오국제선원 건립 후원의 밤



개관 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미국 L.A. 금오국제선원 건립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도영·종상·지명) 발족식 및 후원의 밤이 10월 27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 금산사 주지 평상 스님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욱)은 10월 27일 프레젠테이션에서 '고령화시대 노인의 성(性)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주제로 개관 5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노인문제 연구 소장 홍미령 경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개원 1주년 심정 스님 초청법회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는 11월 28일 대만 불광산사 종장 심정 스님을 초청, 개원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심산 스님은 "한국은 물론 해외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도량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술·학인대회 통합할 터"

전국승가학인연합 새 의장 인오 스님



"전 강원의 스님 일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학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박하고 학인승다운 행사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10월 25-26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제17대 전국승가학인연합 의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인오 스님(해인사 강원 사교반·사진)은 "전국승가학인연합이 열린 주요 행

사인 학술대회와 학인대회를 하나로 통합해 학인스님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로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배지선 기자

수행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氣와 사랑의 약손 교습 안내

- 서울시 사라지거는 전통문화 대상선정!

기공·호흡·운동요법·물리요법·자극요법·자세동작교정요법·정신심리요법·명상요법 그리고 기치유와 경락경혈요법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수행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개별적인 특징에 맞추어 관리하여 드리며 약손요법을 배워 주변에 봉사하시라고 하시는 경우에 집중적으로 개별 전수를 해 드립니다.

기와 사랑의 약손 042-472-1881

전통양생법을 통한 건강 지키기 중극무술내가권(태극권, 형의권, 팔괘장)연구소

- 중극전통기공법·중극무술내가권
체력단련, 자세교정, 집중력강화, 자기조절, 각종 성인병 및 난치병 예방
벽곡법(전통도가식 단식)
- 체질개선, 내장기능 증가 (뱀히 공력이 높은 선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별 특성, 목적에 맞는 공법지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9 메트로존 604호 (시청 맞은편)
상담전화 : 042-471-1882

국난극복 소원성취 일광 스님의 합동영가천도, 수험생들을 위한 합동영가천도 선망부모 유주무주 태이령, 조상령 합동영가천도

영가천도로서 유명한 일광 스님의 10만 영가 구제서원 국난극복 소원성취 선망부모 유주 무주 태이령영가 합동 천도제를 지장도량 성거사에서 봉행하고자 하오니 그동안 영가의 장애를 받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불자님들이나 낙태 유산으로 남다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불자님께서는 이번 합동 천도제에 꼭 동참을 하시어 일광스님과 함께 여러가지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고 만사소원 성취하시어 성불의 인연과 불은(佛恩)의 가피가 각 가정에다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합동천도제때에 이미 많은 분들이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소원성취와 함께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나셨으며 소원성취를 하신 불자님이 많았고 그동안 많은 사찰에서 영가천도를 해보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이번에 합동천도제와 더불어 많은 불자님들이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쁜 합동 천도제 때에 생긴 영험들.

- 합동천도제 전날 어떤 불자님은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어디론가 가는 꿈을 꾸기도 하였으며 합동 천도제 전날 '나를 보내달라'는 조상님의 선물을 받기도 하였다.
어떤 불자님은 천도제를 지내고 쌀이 가득 쌓여있는 방에서 되(쌀을 푸는 도구)로 쌀을 한없이 퍼부어 담는 꿈을 꾸기도 하였고, 어떤 불자님은 천도제를 지내고 꿈에서 아궁이에 장작더미를 한아름을 집어넣고 불을 지피고 그 불길에 하늘로 한없이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사업성취) 천도제 이후로 양식장의 사업 수입이 두배로 늘어났으며, 아들이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뽑히기도 하였고(전라도 광양시), 또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차매증개 호전을 보였으며,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매일같이 잠만자고 형질수술하던 딸이 천도제 이후로 그러한 증세가 완전히 없어졌다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반항한 하던 아이가 모범생으로 바뀌었고, 어떤불자님(천안시 불명동)은 평소엔 항상 어깨 아파서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천도제 이후로는 아꼈던 증세가 말끔히 사라졌고, 어떤 불자님은(경기도 의정부시) 병원에서 못 고쳤던 허리 병이 천도제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으며 그외에도 여러 가지 믿기지 않는 일들이 눈에 띄도록 좋아졌고, 이룰수없을것만 같았던 일들이 성취가 되어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불자님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10월 1일 - (군산시) 그전부터 영가에 장애가 있는 꿈을 알고 몇차례 천도제를 많은 사찰에서 지내보았지만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합동천도제를 지낸 그날 밤 어린아이가 신물을 신고 기어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꿈을 꾸고 이후 정신이 맑아졌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한다. (천안시) 천도제 이후 짓눌렸던 어깨의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한다. 또 어떤 불자님은 여러사찰에서 천도제를 지내 보았지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정진이 잘 안되었는데 합동천도제 이후로 불안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두통증세까지 말끔히 사라졌다고 한다.

합동천도제는 매일 올력 초하루, 그믐, 지장재일에 봉행하며, 당일 100% 천도시키오니 오시기전날 지장경독송이나 지장정군을 하시고 오시면 더욱 큰 가피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합동천도제 동참 보시금 : 20만원 동참 [수자령 영가 10만원 동참] (농협 485047-52-060649 성거사)
* 수험생들을 위한 합동 천도제 : 자녀들이 자기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안나온다고 생각이 되는 자녀를 둔 불자님들께서는 동참을 바랍니다.

충남 천안시 목천면 송전리 282 지장도량 성거사 ☎ 041)567-6820, 567-6822
전화접수로도 가능, 불참시에는 무명장에 입금하시고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이름을 알려주시면 동참을 못하시더라도 100% 천도 시켜 드립니다